

“그래도 우리에게 ‘대투수’ 양현종이 있다”

KIA, 시범경기 NC전 2대3

선발 등판 3⅓이닝 1실점...앞선 부진 흐름 끊고 반등 예고 올려 '5K' 2실점, 제구 불안 노출...김호령, 6경기 연속 안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투수' 양현종이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에서 실점은 최소화하며 시즌 준비를 이어갔다.

양현종은 17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3⅓이닝 3피안타 4사구 2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40km대를 형성했고,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며 전체 66구를 소화했다.

내용이 완전히 매끄럽진 않았지만, 지난 12일 SSG전에서 2⅓이닝 4실점으로 흔들렸던 흐름을 어느 정도 끊어낸 점은 의미가 있었다.

1회는 큰 위기 없이 넘겼다. 투수 앞 땅볼과 볼넷 이후 2루 직선타,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고비는 2회였다. 선두타자 안타와 2루타, 볼넷으로 무사 만루에 몰렸고 희생플라이로 1점을 내줬다. 이어진 1사 23루에서는 땅볼 타구 때 3루 주자를 홈에서 잡아냈고, 마지막 아웃카운트는 포수 한준수의 송구에 이은 박민민의 태그로 3루 주자 견제사를 만들었다. 수비 집중력이 추가 실점을 막았다.

3회에도 흐름은 비슷했다. 2사 이후 투수 앞 내야 안타와 도루, 연속 볼넷으로 다시 만루 위기에 몰렸지만 외야플라이로 이닝을 정리했다.

양현종은 4회 선두타자를 땅볼로 처리한 뒤 임무를 마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시범경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점검 차원의 투구가 가까웠다.

KIA로서는 올 시즌 선발진의 한 축인 양현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다. 지난 시즌 나타난 구위 저하



17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시범경기. 1회말 KIA 양현종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경기에는 KIA가 2-3으로 패했다.

블펜에서는 한재승과 김시훈, 조상우가 나란히 무실점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올리는 2⅓이닝 3피안타 2실점(1자책)을 기록하며 탈삼

진 5개를 잡았지만, 사사구 5개를 내주며 제구 불안울 드러냈다.

타선에서는 7안타가 나온 가운데 김호령이 6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다.

KIA는 0-1로 뒤진 6회 1사 1루에서 김호령의 우중간 1타점 2루타로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곧

바로 실점하며 다시 리드를 내줬고, 7회에도 추가 실점했다. 8회 박정우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추격했지만 더 이상 점수를 내지 못했다.

시범경기 2승 3패 1무를 기록한 KIA는 오는 19일부터 대전에서 한화와 2연전을 치른다. /주흥철 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난 15일 전국소년체전 태권도 종목 광주예선 경기가 열린 빛고을 체육관을 방문해 선수들과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체육 빛나는 미래...맘껏 꿈을 펼쳐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소년체전 예선 경기장 찾아 꿈나무 선수 격려

광주시체육회가 제55회 전국소년체전 예선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을 방문해 광주 스포츠 미래 주역인 꿈나무 선수들을 격려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7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임직원들이 제55회 전국소년체전 예선대회가 열린 보라매 축구공원과 빛고을체육관을 방문해 축구, 태권도 종목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소년체전 광주대표 선발전은 축구,

야구, 탁구 등 22개 종목으로 다음달 5일까지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린다.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선수 및 팀은 오는 5월 부산 일원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소년체전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해부터 소년체전 예선대회를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체육 전문기관으로서 종목단체와 연계해 학교팀뿐만 아니라 지역 클럽 선수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대표선수 선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선발전을 통해 광주체육은 제55회 소년체전에서는 전년 대비 17개 늘어난 75개(금1, 은2, 동32)의 메달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체육 인재들이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 정신을 배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 선수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늘 곁에서 큰 힘이 주는 지도자와 학부모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베스트일레븐, 소년체전 축구 U12 광주대표 선발

광주JK풋볼U12 꺾고 티켓 확보

광주 유소년 축구 신흥 강호 광주베스트일레븐이 제55회 전국소년체전대회 축구 U12 광주 대표로 선발됐다.

광주베스트일레븐은 지난 14일 광주보라매 축구공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전대회 광주대표선발전 U12 결승에서 광주JK풋볼U12를 2-0으로 꺾고 소년체전 출전권을 따냈다.

이번 선발전에서 광주베스트일레븐은 탄탄한 조직력과 뛰어난 개인기를 앞세워 지역 내 경쟁 팀들을 차례로 제압했다.

8강에서 광주에플라인드FC U-12를 6-2로 이긴 뒤 준결승에서는 광주FC U-12에 4-0 완승을 거뒀다. 결승전에서도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광주 최강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조성진 광주베스트일레븐 단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팀으로 선발돼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다”며 “저학년 시기부터 강조해온 드리블 위



지난 14일 열린 소년체전 대표선발전에서 우승한 광주베스트일레븐 선수단. <광주베스트일레븐 선수단 제공>

주의 개인기 능력 배양과 기본기 훈련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서도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그동안 갖고왔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전국에 광주 축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주베스트일레븐은 조성진 단장의 책임 아

래 체계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유소년 지도 경험에 풍부한 김하곤 감독이 팀을 지도하고 있다.

김하곤 감독은 기본기와 인성 교육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탄탄한 기본기 훈련, 팀 전술 이해 및 조직력 향상 등을 중심으로 선수 육성에 힘쓰고 있다. 김 감독은 이미 프로 무대에 김태환, 이희관, 하승준 등 여러 선수를 배출한 바 있다. /박희중 기자

광주교통공사 김혜미·김민주 아이치·나고야 AG 티켓 획득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김혜미와 김민주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혜미는 지난 16일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6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2026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70kg급 결승에서 김지정(순정사정)을 뺏아 1위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김혜미는 16강에서 최재영(한국체대)에게 누르기 한판승, 8강에서 송다영(한국체대)에게 역시 누르기 한판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이에량(경남도청)을 상대로 두번의 허리후리기 절반승으로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안착했다.

김민주는 -70kg급 3위를 차지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김민주는 16강에서 김아현(고창군청)에게 업어치기 유효승, 8강에서 임가람(한국체대)에게 업어치기 절반, 누르기 한판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올랐으나 정승아(경남도청)와의 대결에 앞서 무릎 부상으로 기권했다.

지난해 11월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25



지난 16일 열린 2026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2026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아시안게임 출전 티켓을 거머쥔 김혜미와 김민주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대철 감독, 김혜미, 김민주, 김대욱 코치 <광주교통공사 제공>

순천만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1차선발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내며 태극마크를 달았던 김혜미와 김민주는 1, 2차 선발전과 세계랭킹 포인트를 합산한 결과 최종 국가대표로 확정됐다. /박희중 기자

신상우호, ‘최강’ 일본과 결승행 격돌

‘11년 무승’ 꺾는다...오늘 오후 6시 여자축구 아시안컵 준결승

신상우호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아시아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11년 동안 못 이겨 본 ‘최강’ 일본을 상대한다.

신상우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18일 오후 6시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치러지는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일본과 격돌한다.

신상우호는 8강에서 우즈베키스탄을 6-0으로 완파하면서 ‘1차 목표’인 2027 브라질 여자 월드컵 본선행을 달성했다. 통산 5번째이자 4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다음 목표는 지난 대회에서 아깝게 이루지 못한 아시아 챔피언 타이틀 획득이다.

한국은 2022년 인도 대회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 중국을 상대로 전반전 2-0으로 앞서 우승을 눈앞에 뒀으나 후반전 3골을 얻어맞아 역전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당시 골맛을 본 ‘베테랑’ 지소연과 원어 최유리(이상 수원FC)는 이번 대회에서도 신상우호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일본전은 신상우호의 우승 도전에 최대 고비다.

일본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8위에 올라가 있는 세계적 강호다. 한국은 2위이다.

일본은 FIFA 여자 월드컵에서 2011년 독일 대회 우승, 2015년 캐나다 대회 준우승, 올림픽에서 2012년 런던 대회 준우승, 최근 2회 연속 8강 진출 등의 빛나는 성과를 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일본은 12개 참가국 중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뽐낸다.

조별리그 3경기과 8강전에서 일본은 무려 24골을 몰아치며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4전 전승을 거뒀다. 참가국 중 최다 득점 팀이자 유일한 무실점 팀이다.

한국은 일본과 통산 상대 전적에서 4승 12무 10패로 크게 뒤진다.

최근에 거둔 맞대결 승리는 2015년 동아시아안 컵에서 2-1로 이긴 것으로, 벌써 11년 전 일이다. 이번엔 이기면 10경기 만에 한일전 승전고를 울리게 된다. /연합뉴스